경제동향

요 약

경 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금 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경기

○ **1월 기준 서울 제조업생산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
- 1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86.9(2000=100)로, 전년동월대비 중공업은 6.5% 증가하고 경공업은 2.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임

○ **1월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2,56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각각 2.7%, 12.5%씩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6.3% 감소함

○ **2월 기준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 2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 상승부문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6%)임

고용

○ **2월 기준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한 62.1%로 남자는 74.2%, 여자는 50.8%임

○ **2월 기준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 2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한 4,846천명으로, 2006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나타냄

○ **2월 기준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유지**
- 2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한 4.6%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0.9%p)는 2006년 8월 이후 최저임

부동산

○ **1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4,21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4.9% 감소(전국: 7.9%)함
- 발주자별로 보면 재개발주택, 사무실·점포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50.6% 감소함

○ **2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 2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2006년 11월 이후(12월: 1.9%, 1월:0.9%) 상승세 둔화가 지속됨
- 2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으며, 연립주택(0.5%)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금융

○ **1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세 큰 폭으로 축소**
- 1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증가액은 8,648억원으로, 전월 증가액(4조 4,293억원)보다 큰 폭으로 축소됨

○ **2월 기준 전월대비 서울의 신설법인 수 감소 부도업체 수 감소, 어음부도율 동일**
- 2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23.1%(-457개) 감소한 1,524개임
- 2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보다 7개 감소한 59개로, 2006년중 평균 74.3개를 하회하였고,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과 동일함

○ **2월 기준 KOSPI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한 후 상당폭 하락**
- 2월중 KOSPI 지수는 해외증시 상승세, 외국인 매수, 미국경기 및 물가안정 기대감, 원화강세 우려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26일 사상 최고치(1,470p)를 기록하였으나, 2.27일 중국증시를 비롯한 해외증시가 하락세를 보이자 동반 하락하여 1,417p를 기록함

○ **2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로 전환**
- 2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1.9조원 증가로 전환됨

| 생·산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지난해 1월과 동일

■ 1월 기준 전국 산업생산 증가세 확대

- 1월 전국의 산업생산은 설시기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1.5일) 영향 등으로 증가세가 지난해 12월(3.0%)에 비해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함
- 업종별로는 영상음향통신(-15.0%)을 제외한 반도체(11.4%), 기계장비(17.4%)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냄
- 다만, 설 이동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동차업체(현대자동차) 부분파업(07.1.3~17)·생산라인 정비(기아차), 영상음향통신업종의 부진지속 등으로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1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지난해 1월과 동일한 수준

- 1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6.9(2000=100)로, 지난해 1월의 제조업 생산지수와 동일한 수준임
- 업종별로 보면 컴퓨터 및 사무기기,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섬유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가스,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함

■ 서울 중공업부문 산업생산 증가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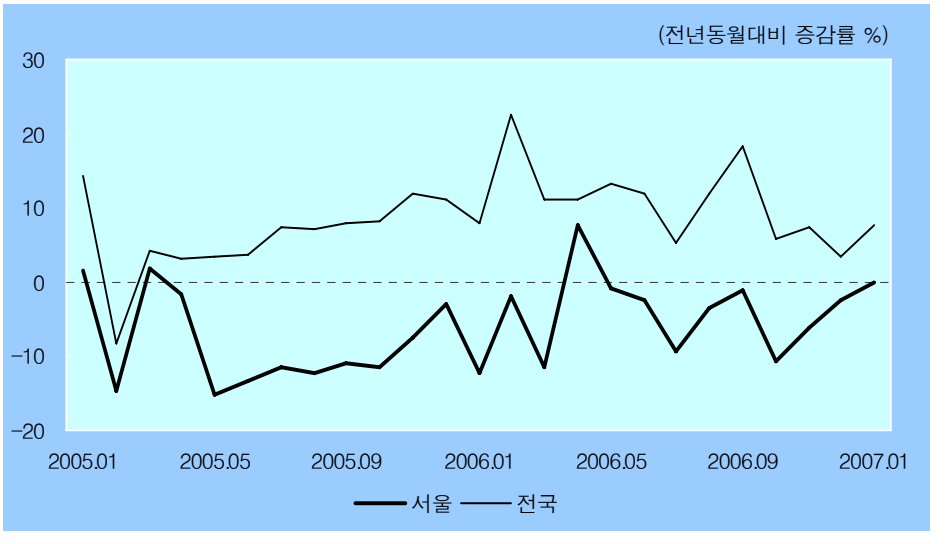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6.5% 증가하여 2006년 4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됨
- 세부업종별로 컴퓨터 및 사무기기(314.7%) 등이 크게 증가하여 중공업부분을 증가세로 반전시켰고, 이 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75.0%), 가구 및 기타제품(-34.3%), 고무 및 플라스틱(-26.7%) 등은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하여 증가세가 한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반전됨
- 세부업종별로 가죽·가방 및 신발(12.3%), 의복 및 모피(11.5%) 등이 증가하였고 음식료품(-21.8%), 섬유제품(-18.4%)등이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월	9월	10월	11월	12월p	1월p
전년동월비	전국		7.7 (4.5)	17.6 (3.5)	5.5 (0.3)	7.1 (−0.2	3.0 (−2.8)	7.4 (1.3)
	서울 (제조업)		−12.4 (−16.9)	−1.0 (10.5)	−10.6 (−4.5)	−6.2 (8.9)	−2.4 (8.2)	0.0 (−14.9)
		중공업	−38.0 (−30.6)	−17.1 (4.9)	−22.2 (−9.9)	−21.6 (11.2)	−13.8 (25.2)	6.5 (−14.3)
		경공업	2.4 (−10.8)	5.7 (12.4)	−6.4 (−2.8)	−0.2 (8.1)	2.6 (2.9)	−2.3 (−15.1)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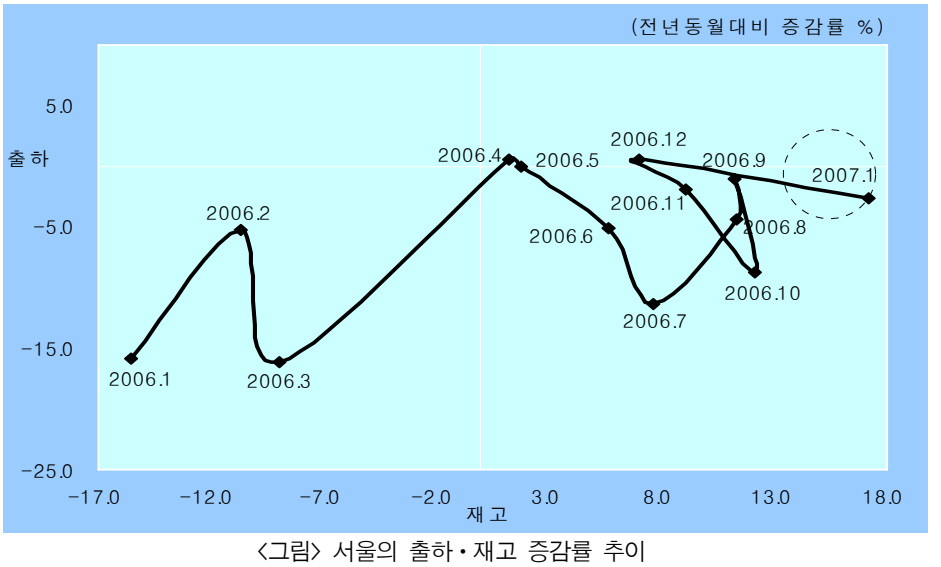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누증 단계

■ 1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1월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하고,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함
-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출하는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재고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1월의 출하 · 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출하는 소폭 하향하고 재고는 큰 폭으로 상향하여 재고누증 단계(<Box> 참조)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1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2006년 7월 이후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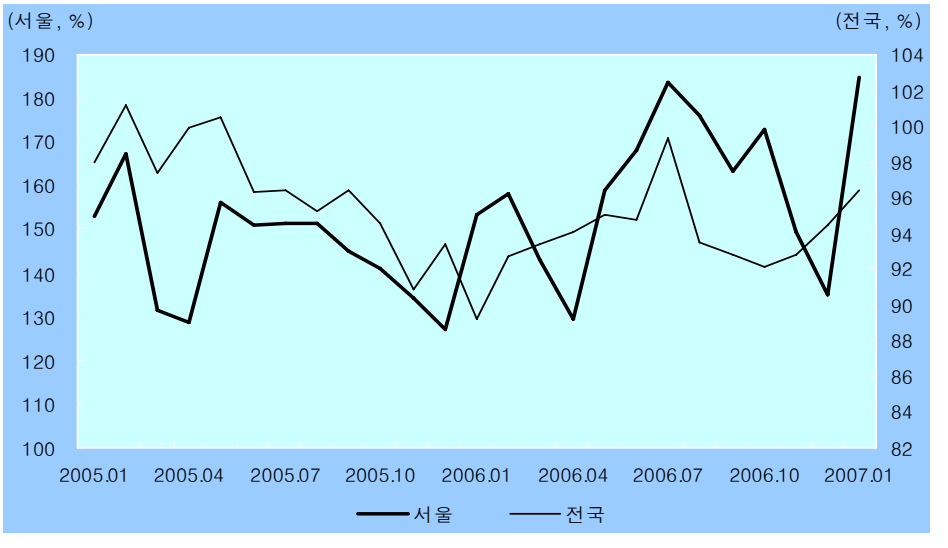
- 1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6.4%로 전월대비 1.9%p 상승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전월 보다 49.7%p 상승한 184.8%로 2006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214.3%, 경공업부문이 174.0%로, 전월에 비해 각각 100.4%p, 32.7%p 상승하여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영향을 주고, 특히 중공업의 출하 감소로 인한 중업공부문의 높은 재고율이 부각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월	9월	10월	11월	12월p	1월p
재고율	전국		89.2	92.8	92.1	92.8	94.5	96.4
	서울 (제조업)		153.3	163.2	172.9	149.5	135.1	184.8
		중공업	135.3	137.0	153.7	135.3	113.9	214.3
		경공업	157.6	169.6	176.7	152.2	141.3	174.0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출하 원지수)×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1월 기준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감소세로 반전

- 1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701십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3% 감소하여 증가세가 감소세로 반전됨
- 백화점은 가전제품, 가구 의복 등의 판매가 늘었으나 설 연휴기간 이동으로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판매가 줄어 6.6% 감소함
- 대형마트는 설 연휴기간 이동으로 귀금속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줄어 8.4% 감소함

■ 1월 기준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감소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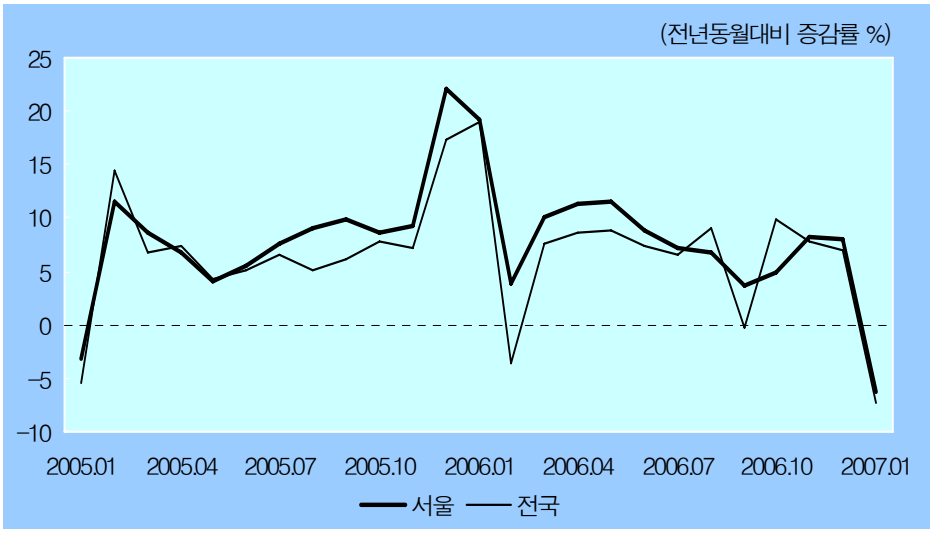
- 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256십억 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백화점 판매액은 2.7%, 대형마트 12.5% 각각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3% 감소함
- 백화점부문의 경우 졸업 · 입학시즌으로 인한 의복 신발 가방 등의 판매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설 특수의 이동으로 음식료품 판매액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함
- 대형마트부문은 설 특수의 이동(2006년, 1월→2007년, 2월)에 따른 음식료품 판매 감소로 인하여 전년동월대비 12.5% 감소함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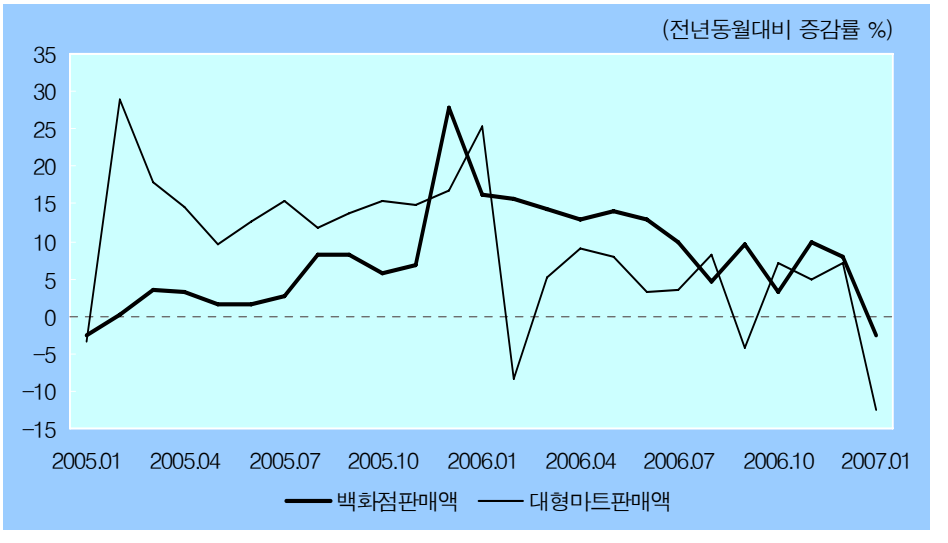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1월	9월	10월	11월	12월p	1월p
판매액	전국		3,992 (19)	3,720 (−0.1)	3,990 (9.5)	3,791 (7.8)	4,370 (6.9)	3,701 (−7.3)
	서울		1,341 (19.3)	1,261 (3.7)	1,319 (4.9)	1,277 (8.2)	1,555 (8.0)	1,256 (−6.3)
		백화점	748 (16.2)	712 (9.7)	782 (3.1)	750 (9.9)	966 (7.9)	728 (−2.7)
		대형마트 (할인점)	555 (25.3)	513 (−4.2)	504 (7.1)	496 (4.9)	548 (7.1)	485 (−12.5)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2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가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 확대

■ 2월 기준 전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 확대

- 2월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7%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0.5%p) 확대됨
- 아는 설 수요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이 큰 폭(3.6%)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어 개인서비스(0.6%), 집세(0.2%), 공업제품(0.2%) 등 공공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부문이 상승한데에 기인함

■ 2월 기준 서울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 확대

- 2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3배 확대됨
- 전국의 물가상승률보다는 0.1%p 낮은 수준이나, 지난 5년간 2월 평균 물가상승률(0.4%)과 비교할 때 0.2%p를 상회함
- 비목별로 보면 지난달에 이어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 등 통신(-0.5%)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6%), 교육(1.2%), 자동차임의보험료(6.0%) 등 기타잡비 부문은 상승함

■ 상품부문이 서비스부문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

- 상품성질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1.1%, 서비스부문은 0.4% 상승하여 상품부문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함
- 상품부문을 보면 설 수요 증가로 채소류, 과실류 등 농산물과 육류 등 축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농축수산물이 큰 폭(4.1%)으로 상승함
- 서비스 부문을 보면 개인서비스가 전월대비 0.6% 상승하였으며, 이어 집세는 0.2%, 공공서비스는 0.1% 상승함

■ 신선식품지수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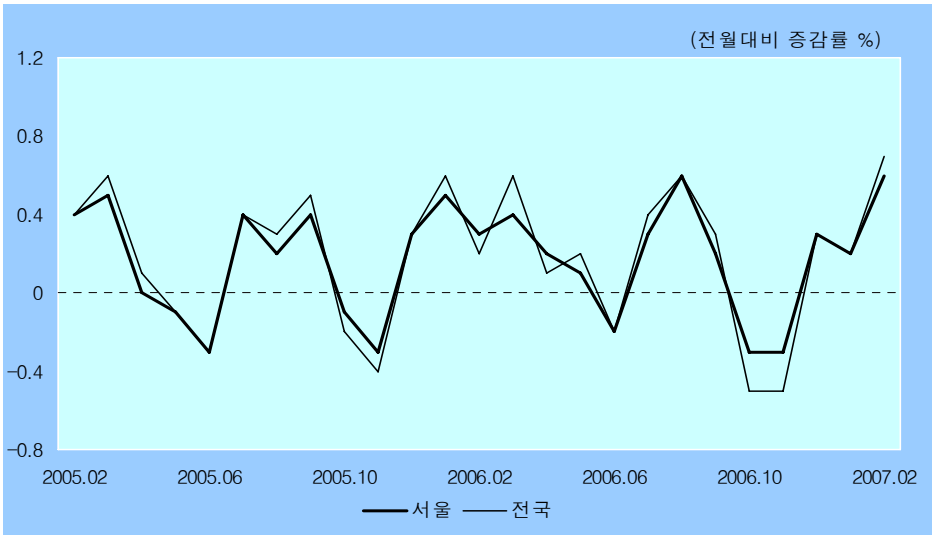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0.8%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0.7%p)됨
-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일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6.8% 상승하여 지난달(0.6%)에 비해 11배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비	전국		0.2 (2.0)	0.3 (2.5)	−0.5 (2.2)	−0.5 (2.1)	0.3 (2.1)	0.2 (1.7)	0.7 (2.2)
	서울		0.3 (1.8)	0.2 (2.3)	−0.3 (2.1)	−0.3 (2.1)	0.3 (2.1)	0.2 (1.8)	0.6 (2.1)
	상품 성질별	상품	0.0 (1.4)	0.1 (1.3)	−0.8 (0.8)	−1.0 (0.9)	0.4 (0.8)	0.1 (0.2)	1.1 (1.3)
		서비스	0.5 (2.2)	0.3 (2.8)	0.1 (2.9)	0.0 (2.7)	0.2 (2.7)	0.3 (2.6)	0.4 (2.5)
	생활물가		0.5 (3.2)	0.5 (3.2)	−0.5 (2.9)	−0.7 (2.6)	0.4 (2.7)	0.1 (1.9)	0.8 (2.2)
	신선식품		−0.5 (1.2)	1.7 (1.3)	−2.7 (−0.2)	−6.8 (1.2)	3.0 (0.6)	0.6 (−3.1)	6.8 (4.0)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 2월 기준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2월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한 38,997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0.7% 증가한 23,536천명임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남자는 72.8%, 여자는 48.6%임

■ 2월 기준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지난 10월 이후 감소세 지속

- 2월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17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한 반면에, 경제활동인구는 5,077천명으로 1.1% 감소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한 62.1%로 남자는 74.2%, 여자는 50.8%임
- 반면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함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전국	1.3 (0.1)	0.7 (0.5)	0.8 (0.7)	1.0 (−0.1)	1.1 (−1.9)	1.0 (−0.8)	0.7 (−0.2)
	서울	1.0 (−0.3)	−0.2 (0.4)	−0.1 (1.0)	−0.2 (0.3)	−1.0 (−0.9)	−0.4 (0.1)	−1.1 (−1.0)
	남자	−0.3 (−0.2)	−0.3 (0.2)	−0l.3 (0.5)	−1.3 (−0.1)	−1.6 (−0.6)	−0.4 (0.3)	−0.4 (−0.2)
	여자	2.7 (−0.6)	−0.1 (0.6)	0.2 (1.7)	1.3 (0.8)	−0.2 (−1.3)	−0.4 (−0.2)	−1.9 (−2.1)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60.5	62.0	62.4	62.3	61.1	60.5	60.4
	서울	62.9	62.5	63.2	63.4	62.8	62.8	62.1
	남자	74.5	74.3	74.7	74.6	74.3	74.3	74.2
	여자	52.0	51.5	52.3	52.7	52.0	51.9	50.8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 2월 기준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2월 전국의 취업자는 22,67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262천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8.4%(13,244천명), 여자는 41.6%(9,430천명)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6.4%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청년층은 감소세, 고령층은 증가세인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감소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됨

■ 2월 기준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2월 서울의 취업자는 4,8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16천명) 감소하여 지난달에 감소세를 지속함
- 전국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서울의 취업자 수는 지난 1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 고용사정이 전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7%(2,794천명), 여자는 42.3%(2,052천명)로 전체 취업자중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0.7%p 높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2% 증가한 반면에 여자는 1.0%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여자 취업자의 증가세는 하락세로 반전됨
- 전체 취업자의 21.7%(1,053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하여 전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감소율을 나타냄
- 전체 취업자의 14.5%(704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6.3%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취업자는 감소(-2.3%)한 반면에 60세 이상에서 큰 폭(13.8%)의 증가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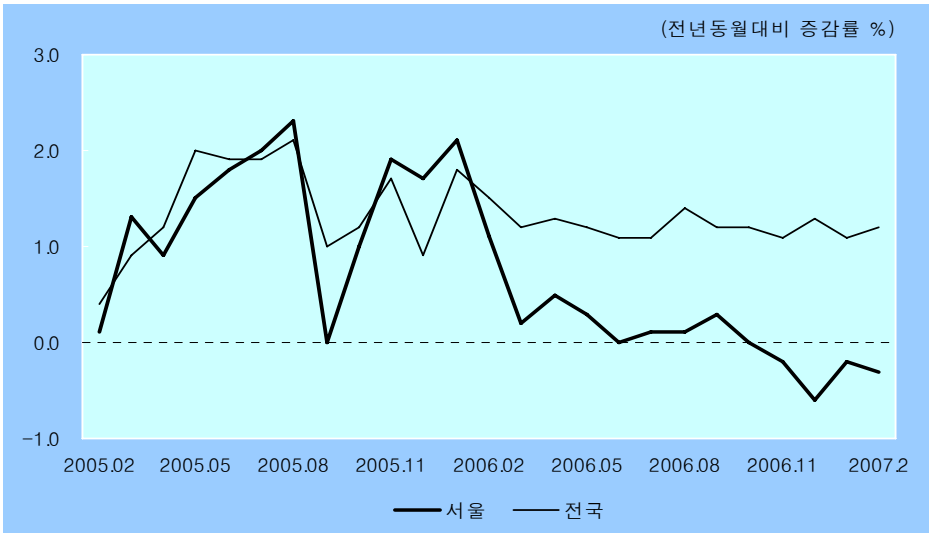
〈표〉 고용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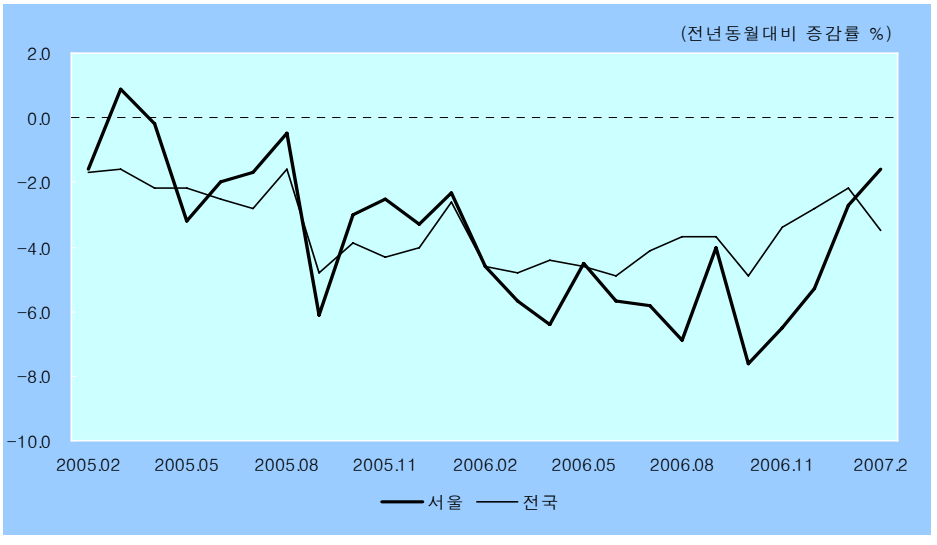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취업자	전국		1.5	1.2	1.2	1.1	1.3	1.1	1.2
			(−0.3)	(0.7)	(0.6)	(0.0)	(−2.0)	(−1.1)	(−0.2)
	서울		1.1	0.3	0.0	−0.2	−0.6	−0.2	−0.3
			(−0.7)	(0.6)	(0.5)	(0.6)	(−0.8)	(−0.4)	(−0.9)
		남자	−0.3	0.4	−0.3	−1.6	−1.5	−0.9	0.2
			(−0.6)	(0.2)	(0.0)	(0.1)	(−0.7)	(−0.4)	(0.5)
		여자	3.2	0.2	0.4	1.7	0.4	0.7	−1.0
			(−0.9)	(1.1)	(1.3)	(1.3)	(−1.1)	(−0.3)	(−2.7)
청년층 취업자	전국		−4.6	−3.7	−4.9	−3.4	−2.8	−2.2	−1.6
			(−2.7)	(−1.4)	(−0.6)	(1.0)	(0.6)	(2.2)	(−2.1)
	서울		−4.6	−4.0	−7.6	−6.5	−5.3	−2.7	−3.5
			(−2.2)	(0.7)	(−2.3)	(1.4)	(1.1)	(3.6)	(−2.9)
고령층 취업자	전국		3.7	4.1	6.1	6.3	6.4	6.4	6.4
			(1.0)	(1.9)	(2.7)	(−1.5)	(−7.8)	(−3.9)	(1.0)
	서울		4.3	2.3	8.2	7.4	6.3	6.1	6.3
			(−0.7)	(1.5)	(5.7)	(0.3)	(−1.8)	(−2.7)	(−0.6)
		55−59세	3.0	2.7	3.4	2.6	−1.6	−1.6	−2.3
			(−0.3)	(2.8)	(2.0)	(1.3)	(−3.4)	(−2.3)	(−1.0)
		60세 이상	5.3	1.7	11.9	11.4	13.0	12.8	13.8
			(−1.1)	(0.1)	(8.8)	(−0.5)	(−0.5)	(−3.1)	(−0.2)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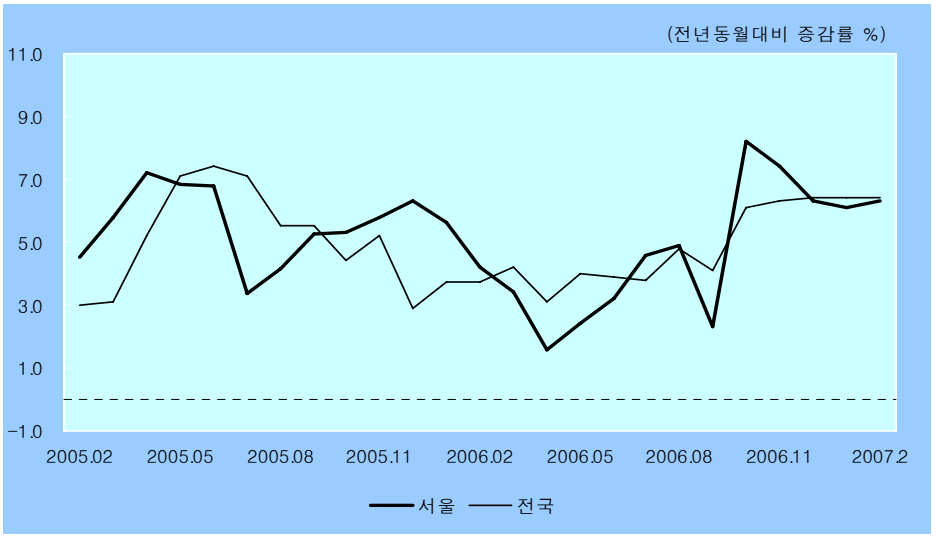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

- 2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7.9%)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8.2%), 제조업(14.5%),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0%), 건설업(8.3%)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어 전기·운수·통신·금융업(0.9), 건설업(0.2%)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8.5%, 도소매·음식숙박업은 3.4%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달에 비해 큰 폭(4.2%p)으로 확대됨

■ 전문·기술·행정관리자 수를 제외하고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 2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0.9%)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8.4%), 서비스·판매 종사자(24.5%), 사무종사자(16.1%) 순임
- 전년동월대비 전문·기술·행정관리자(4.1%)를 제외하고, 서비스·판매 종사자(-5.1%),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0.6%), 사무종사자(-0.6%)는 감소함
-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지난달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나타내며, 감소폭은 소폭(0.3%p) 축소됨

■ 임금근로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 2월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4.0% (3,584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6.0%(1,262천명)로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6%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8%(63천명) 증가한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 5.8%(-87천명) 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7% 증가한 반면에 임시근로자(-3.6%)와 일용근로자(-0.8%)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1.9%, 자영업자는 4.7% 감소하여 무급가족종사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산업별	· 제조업	−3.4 (1.2)	−4.1 (0.6)	0.0 (5.4)	−6.1 (−6.6)	−6.8 (−1.8)	−4.3 (0.8)	−8.5 (−3.2)
	SOC 및 기타서비스업	2.0 (−1.1)	1.1 (0.6)	0.0 (−0.3)	0.9 (2.0)	0.5 (−0.7)	0.6 (−0.6)	1.2 (−0.5)
	·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	4.4 (−0.5)	2.3 (1.5)	1.5 (0.5)	2.5 (2.8)	3.1 (−1.2)	4.5 (0.1)	5.3 (0.2)
	· 도소매 · 음식숙박	−0.6 (−1.2)	−0.8 (−0.2)	−1.8 (−0.6)	−1.2 (0.6)	−1.2 (1.4)	−2.6 (−2.4)	−3.4 (−2.0)
	·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	0.6 (−1.8)	1.0 (−2.8)	−0.4 (−1.0)	0.3 (4.0)	−0.3 (−0.2)	−0.1 (1.5)	0.9 (−0.8)
	· 건설업	2.7 (−2.0)	3.1 (4.4)	0.1 (−2.0)	1.5 (0.6)	−3.7 (−5.7)	−3.9 (0.2)	0.2 (2.2)
직업별	전문 · 기술 · 행정관리자	−0.7 (−0.4)	2.9 (1.6)	1.4 (−0.6)	2.8 (1.6)	0.4 (−2.3)	3.0 (1.6)	4.1 (0.7)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0 (−0.9)	−1.1 (1.4)	1.6 (3.0)	−1.0 (−1.9)	−3.0 (−3.5)	−2.3 (−0.2)	−0.6 (−2.2)
	서비스 · 판매종사자	−0.7 (−0.7)	−2.1 (−2.1)	−3.9 (−0.8)	−2.5 (1.3)	1.7 (3.7)	−2.1 (−4.0)	−5.1 (−3.7)
	사무종사자	5.9 (−1.1)	1.7 (1.9)	0.4 (0.1)	−0.9 (2.4)	−2.1 (−0.3)	0.5 (1.5)	−0.6 (−2.2)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2.9 (−0.6)	1.2 (0.7)	0.8 (0.8)	1.0 (0.5)	0.1 (−1.1)	2.2 (1.3)	1.8 (−1.0)
	비임금근로자	−3.2 (−1.2)	−2.0 (0.4)	−2.0 (−0.3)	−3.4 (0.7)	−2.6 (−0.2)	−6.4 (−4.9)	−5.8 (−0.6)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업·률 |

서울의 실업률 4%대 유지

■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유지

- 2월 전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3.7%(실업자 861천명)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실업자 571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으며, 여자는 3.0%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하여 여자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
- 교육정도별로 보면 중졸 이하는 3.0%, 고졸은 4.2%, 대졸 이상은 3.5%로 고졸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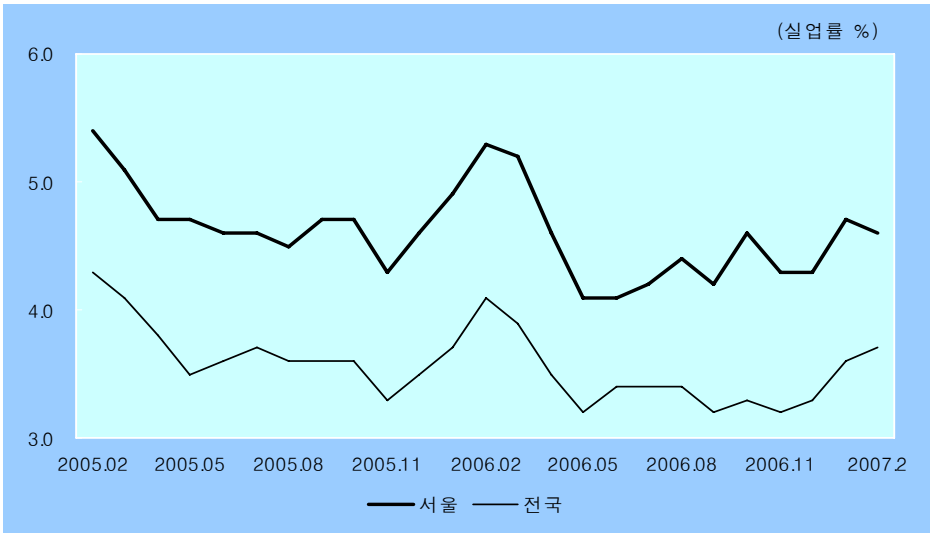
- 2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한 4.6%(실업자 232천명)임
- 2월 서울과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0.9%p)는 2006년 8월 이후 제일 낮으며, 지난 5년간 2월 평균 실업률 5.2%보다 0.6%p 낮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 여자는 4.0%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6%p, 여자는 0.9%p 감소하여 여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전국에 비해 남자는 0.9%p, 여자는1.0%p 높은 수준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에 비해 전국과의 격차가 더 큼
- 7월 이후(7월:0.2%p, 8월:0.4%p, 9월:0.8%p, 10월:1.0%p 11월:1.3%p 12월:1.7%p 1월:2.1%p) 꾸준히 확대되어 오던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의 차는 2월 들어 축소됨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4.1	3.2	3.3	3.2	3.3	3.6	3.7
서울		5.3	4.2	4.6	4.3	4.3	4.7	4.6
성별	남자	5.6	4.5	5.0	4.9	5.0	5.6	5.0
성별	여자	4.9	3.7	4.0	3.6	· 3.3	3.5	4.0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설·경·기 |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1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64,111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함
- 발주자별로 보면 주택, 토지조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73.4%)이, 공종별로 보면 상하수도, 토지공사 등을 중심으로 토목부문(38.4%)에서 증가함

■ 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1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4,216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4.9% 감소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월평균 전국대비 비중(16.0%)보다 9.4%p 낮은 수준임
- 발주자별로 보면 재개발주택, 사무실·점포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50.6% 감소하였으며, 사무실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8.2% 감소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6.7%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56.2% 감소하였으나, 3.3%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195.7% 증가함

〈표〉 건설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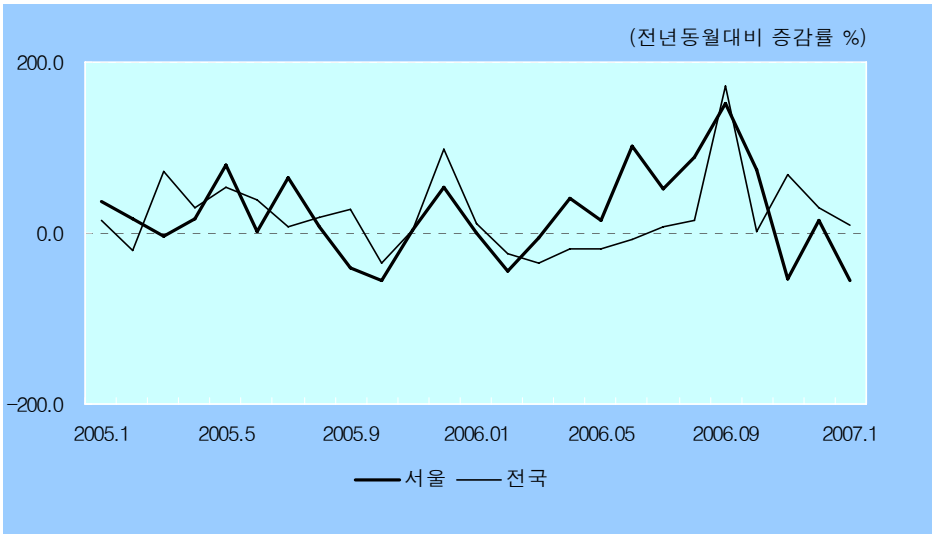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6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5,845.7	10,223.2	5,438.8	9,030.9	16,050.8	6,411.1	9.7 (-60.1)
서울		935.8	1,316.2	1,273.6	440.6	1,721.3	421.6	-54.9 (-75.5)
발주자별	공공	34.1	596.8	482.2	176.8	152.6	31.3	-8.2 (-79.5)
	민간	789.6	517.0	791.4	263.8	1,564.4	390.2	-50.6 (-75.1)
공종별	건축	931.2	1,205.4	1,205.3	313.9	1,609.3	407.7	-56.2 (-74.7)
	토목	4.6	106.0	67.0	124.2	95.8	13.6	195.7 (-85.8)

주: (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건설교통부 1월 건축허가통계 자료의 공표시기가 3월 말에서 4월 초로 연기됨에 따라 본 호에서는 건축허가면적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2월 기준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축소

- 2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함으로서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0.5%p 축소됨
- 이는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연립주택,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상승현상이 나타남

■ 2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2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으며 전월에 비해 크게 상승세가 둔화됨
- 11월을 기준으로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냄
- 이는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2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5년간 2월 상승률 1.1%를 하회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2월 상승률(2004년:0.5%, 2005년:0.6%, 2006년:0.8%)보다 낮은 수준임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난 11월 이후(11월: 1.7%p, 12월: 1.1%p 1월:0.6%p) 전국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됨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0.6%, 강남은 0.2% 상승하여 3개월 연속 강북이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주택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이 0.6%, 단독주택이 0.5% 상승하였으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0.3%의 상승률을 나타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0.5	0.5	1.3	3.1	1.9	0.9	0.4	(12.1)
서울		0.8	0.8	2.0	4.8	3.0	1.5	0.4	(19.5)
아파트		1.1	0.6	2.2	6.2	3.7	1.8	0.3	(24.1)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3	0.7	1.5	4.1	3.8	2.0	0.6	(17.2)
	강남	1.2	0.9	2.3	5.4	2.2	1.1	0.2	(21.6)

주: 전월대비 증감률, ( )안은 전년동월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용산구, 도봉구, 중구

- 강북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 구 중 8개 구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4%)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구가 강북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6%)을 상회함
- 용산구(1.8%)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도봉구(1.3%), 중구(1.2%), 노원구(0.7%), 성동구(0.6%), 강북구(0.5%), 마포구(0.5%), 서대문구(0.5%)의 순임
- 반면 종로구(0.1%), 광진구(0.3%), 동대문구(0.3%), 성북구(0.3%)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강서구, 동작구, 영등포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서남부지역인 강서구(0.5%), 동작구(0.5%), 영등포구(0.5%)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구에서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4%)을 하회함
- 강남구(-0.1%)는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서초구는 보합세를 기록함
- 이는 정부의 11.15 및 1.11 대책 발표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반적인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 둔화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축소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1/6로 축소됨
- 강북은 0.6%, 강남은 0.1% 상승하여 지난달에 이어 강북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함
- 구별로 보면 강북구(1.3%), 성동구(1.0%), 성북구(0.9%), 서대문구(0.8%), 관악구(0.7%), 도봉구(0.7%), 중랑구(0.7%), 구로구(0.6%), 노원구(0.6%), 영등포구(0.6%), 동대문구(0.5%), 강서구(0.4%)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양천구(-0.4%), 은평구(-0.1%), 동대문구(-0.1%), 양천구(-0.1%)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함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대비 0.4% 상승한 1,732만원으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0.9%p 축소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3548만원), 서초구(2780만원), 송파구(2590만원), 용산구(2283만원), 양천구(2225만원), 강동구(2002만원), 광진구(1751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금천구(871만원), 중랑구(876만원), 은평구(885만원), 강북구(892만원), 도봉구(914만원), 노원구(966만원)임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 2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 2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0.1%p) 축소됨
- 주택전세가격의 상승은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계획과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매수대기자의 전세수요 전환과 봄 이사수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 2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0.1%p) 축소됨
- 그러나 지난 9, 10, 11월의 급격한 상승세는 12월 이후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나타냄
- 일반적으로 2월은 봄 이사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 2월은 지난 10년간 2월 평균 증감률(1.6%)을 소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강북, 강남 모두 0.4% 상승률을 나타냄
-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은 0.5%, 아파트는 0.4%, 단독주택은 0.3% 상승하여, 매매가격, 전세가격 모두 연립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0.4	0.8	1.0	1.0	0.6	0.4	0.3	(6.4)
서울		0.7	1.3	1.4	1.6	0.5	0.5	0.4	(9.5)
아파트		0.9	1.2	1.7	1.7	0.6	0.7	0.4	(10.7)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0.5	1.3	1.6	1.6	0.8	0.6	0.4	(9.7)
	강남	0.8	1.2	1.3	1.6	0.5	0.5	0.4	(9.4)

주: , ( ) 은 전년동월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서초구, 성동구, 동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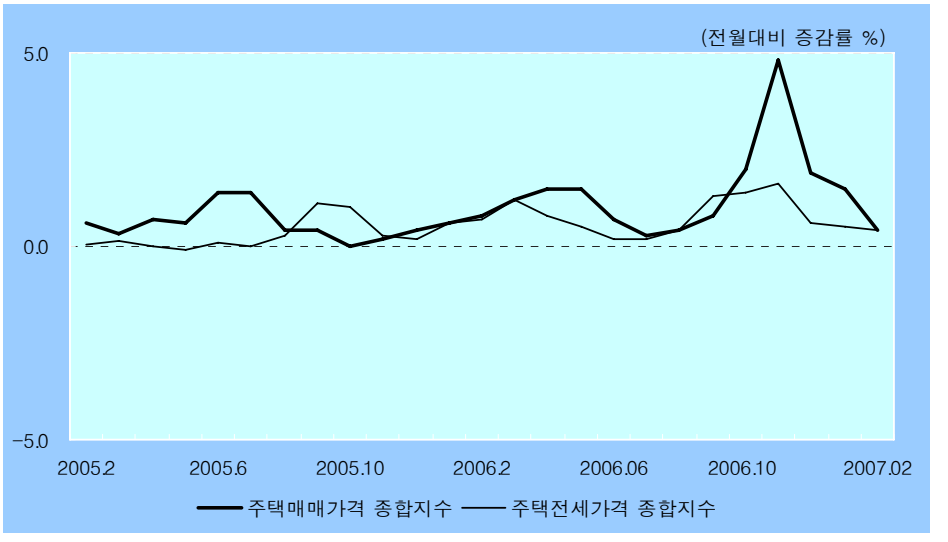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0.9%)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성동구(0.8%), 동작구(0.7%), 강서구(0.6%), 구로구(0.6%), 노원구(0.6%), 도봉구(0.6%), 서대문구(0.6%), 중구(0.5%)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양천구(-0.2%)는 지난달에 이어 소폭 하락하였으며, 용산구, 종로구는 보합세를 나타냄

■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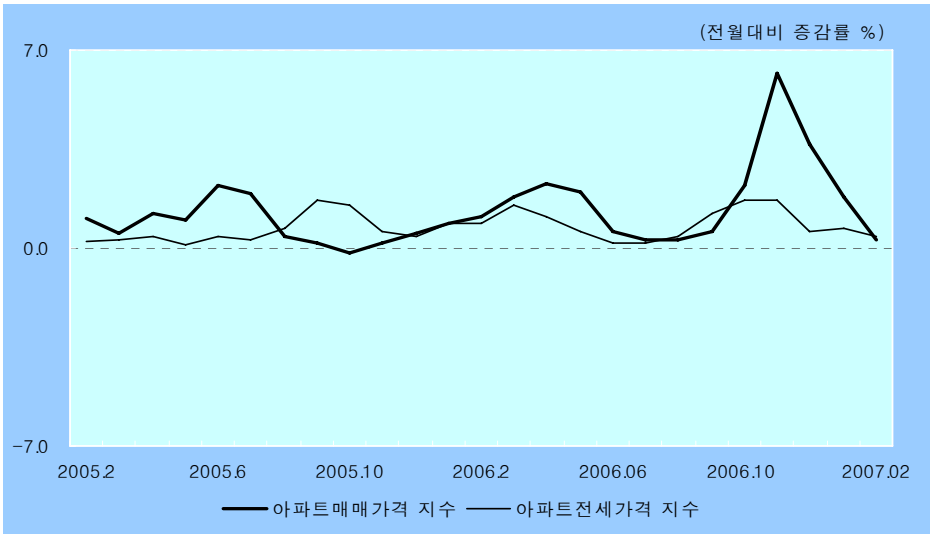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0.3%p축소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0.5%, 강남은 0.4% 상승하여 지난 9월 이후 강북이 강남을 상회함
- 구별로는 성동구(1.5%), 서초구(1.1%)에서 1.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강북구(0.9%), 구로구(0.8%), 관악구(0.7%), 서대문구(0.7%), 성북구(0.7%), 금천구(0.6%), 노원구(0.6%), 동작구(0.5%)에서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난 12월에 이어 양천구(-0.3%)는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광진구, 용산구는 보합세를 기록함
- 2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한 609만원으로 강남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금천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지난 12월 이후 45% 미만을 나타냄

- 2007년 1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2.8%로 지난 12월에 비해 미미한(0.1%p) 하락을 나타냄
- 이는 전국 평균 54.3%를 11.5%p 하회하고 있으며 확대되던 전국과의 격차(9월:9.0%p 10월:9.1%p, 11월:10.1%p, 12월: 10.9%p 1월: 11.4%p)는 안정되는 양상을 나타냄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9.5%, 강남은 37.2% 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10% 이상임
- 지난 11월 이후 강남지역은 30%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에 비해 매매가격 상승이 훨씬 높았음을 반영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중·자·금·사·정 |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증가세 큰 폭으로 축소

■ 2월 기준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상당폭 하락

- 2월말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전월대비 0.16%p 하락한 4.86%로, 2006년 9월부터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됨
- 월초반 임대주택펀드 조성 소식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이후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 국내 경제지표 부진,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수 등에 기인하여 하향함

■ 2월 기준 CD(91일) 유통수익률 소폭 하락

- 2월말 CD 유통수익률은 전월대비 0.02%p 하락한 4.94%로, CD발행이 줄어들면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함
- 2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4.55%로, 전월대비 0.06%p 하락함

■ 2월 기준 장·단기 금리차 축소

- 2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축소됨

■ 2월 기준 KOSPI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한 후 상당폭 하락

- 2월중 KOSPI 지수는 해외증시 상승세, 외국인 매수, 미국경기 및 물가안정 기대감, 원화강세 우려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26일 사상 최고치(1,470p)를 기록하였으나, 2,27일 중국증시를 비롯한 해외증시가 하락세를 보이자 동반 하락하여 1,417.3p를 기록함
- 2월중 KOSDAQ 지수도 2.26일 사상최고치(613.01p)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27일 이후 하락하여 600.9p로 마감됨

■ 2월 기준 원/달러 환율 상승

- 2월중 원/달러 환율은 외환 수급이 균형을 이루며 930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월말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941원대로 상승함
- 월 초반에는 엔화환율 하락 등으로 932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엔화환율 상승과 함께 930원대 후반의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28일 글로벌 주가하락과 외국인 주식 순매도 영향 등으로 941원대로 상승 마감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6일	
금리	국고채(3년)	4.71	4.82	4.92	5.02	4.86	4.76	−3.19
	CD(91일물)	4.58	4.67	4.86	4.96	4.94	4.94	−0.40
	콜금리(1일)	4.48	4.49	4.60	4.61	4.55	4.61	−1.30
	장단기 금리차[1]	0.23	0.33	0.32	0.41	0.31	0.15	−24.39
주가	KOSPI[2]	1,364.6	1,432.2	1,434.5	1,360.2	1,417.3	1,449.8	4.20
	KOSDAQ[2]	586.1	622.2	606.2	576.4	600.9	640.88	4.25
환률 (₩/US$)[2]		942.3	929.5	930.6	940.9	941.8	938.5	0.10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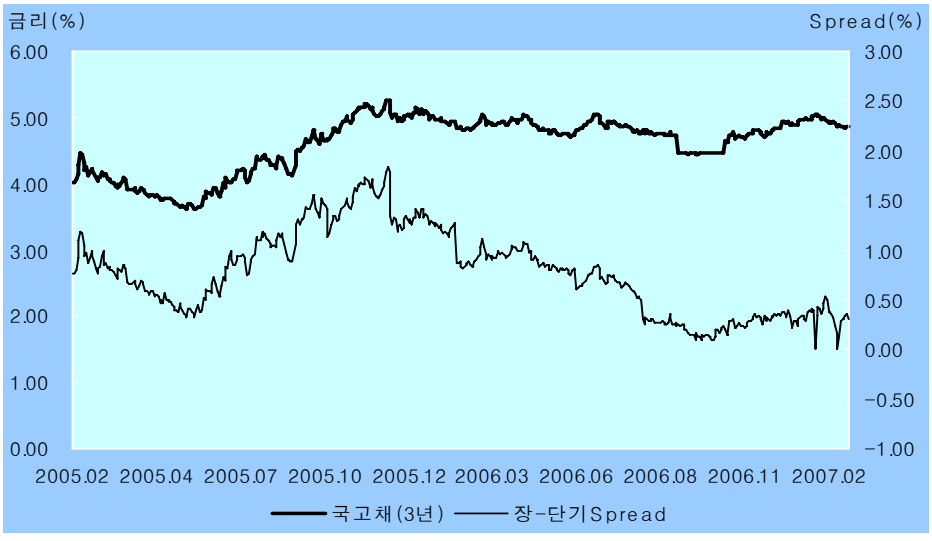
- 2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1.9조원 증가로 전환됨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감소,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0.4조원 늘어나는데 그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학자금대출 취급 등으로 1.5조원 증가함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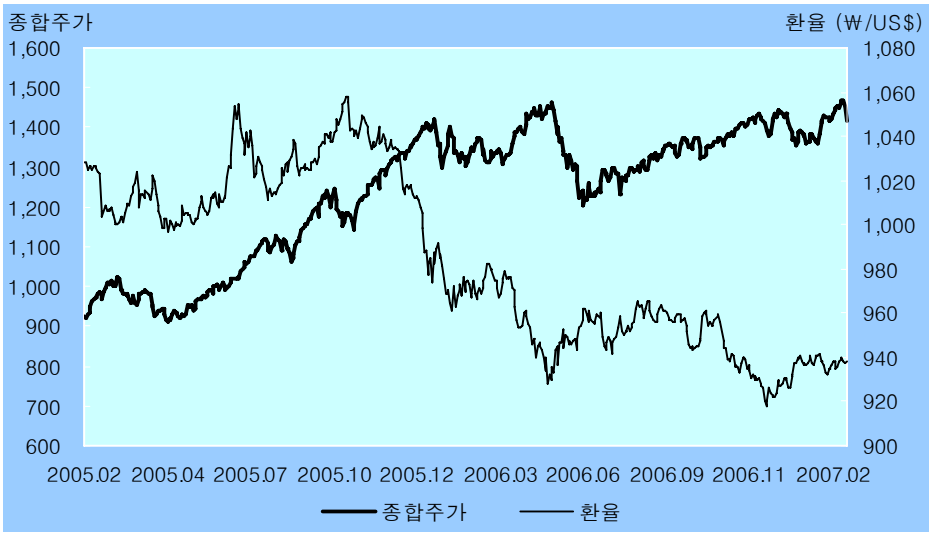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월말잔액		
							2007년		전월비
	연중	2월	11월	12월	1월	2월	1월	2월	
가계대출[1]	40.9	2.9	5.6	5.0	−0.2	1.9	345.4	347.3	0.55
주택담보대출[2]	26.8	0.6	4.2	3.2	0.7	0.4	217.8	218.2	0.18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4.0	2.3	1.5	1.7	−0.9	1.5	126.0	127.5	1.19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세 축소

- 1월말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919조 7,608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 482억원 증가함
- 1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52조 6,266억원이고, 전월대비 8,648억원 증가하여 전월 증가액 4조 4,293억원 보다 크게 감소함

〈표〉 서울시 금융기관[1]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원, %)

		2006년				2007년	전월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예금은행	617,446.1	680,074.3	692,188.3	699,430.3	700,256.6	0.12
	비은행기관	190,733.2	212,597.5	214,453.9	217,282.3	219,504.2	1.02
	합계	808,179.3	892,671.8	906,642.2	916,712.6	919,760.8	0.33
서울	예금은행	263,846.4	283,140.3	287,087.7	291,319.0	289,422.6	-0.65
	비은행기관	49,559.7	59,888.0	60,244.8	60,442.8	63,204.0	4.57
	합계	313,406.1	343,028.3	347,332.5	351,761.8	352,626.6	0.25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1월 기준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하락

- 1월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전월보다 0.7%p 하락한 55.1%를 기록함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1] 추이

(단위 : %, %p)

	2006년				2007년	증감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 국	84.0	84.6	85.3	83.2	84.0	0.8
서 울	59.5	57.0	57.3	55.8	55.1	-0.7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업·동·향 |

서울 신설법인 수 큰 폭으로 감소

■ 2월 전국 신설법인 수 큰 폭으로 감소

- 2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23.7%(-1,265개) 감소한 4,072개임
- 업종별로 전월대비 제조업(4.2%)만 증가하고 건설 및 설비업(-4.4%), 서비스업(-17.9%) 등은 감소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2.5%, 제조업 17.2%, 건설 및 설비업 19.2%를 차지함

■ 2월 서울 신설법인 수 큰 폭으로 감소

- 2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23.1%(-457개) 감소한 1,524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7.4%로 나타남
- 업종별로 전월대비 제조업(-26.7%), 건설 및 설비업(-32.8%), 서비스업(-21.%) 등 전 업종이 감소함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감소

- 2월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1,283개로 전월대비 356개 감소함
- 부문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76.5%), 통신업(33.3%) 등이 증가하고 사업서비스업(-29.9%), 도·소매업(-23.9%), 운수업(-16.9%) 등이 감소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전월(82.7%)보다 증가한 84.1%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2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635	4,393	4,223	5,337	4,072	-1,265	-23.7	-563	-12.1
서울	1,753	1,729	1,623	1,981	1,524	-457	-23.1	-229	-13.1
서비스업	1,400	1,473	1,420	1,639	1,283	-356	-21.7	-117	-8.4
제조업	169	97	109	150	110	-40	-26.7	-59	-34.9
건설 및 설비업	183	154	92	192	129	-63	-32.8	-54	-29.5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음·부·도·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2월 기준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2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과 동일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59개로, 전월(188개) 보다 29개 감소하여 2006년중 평균 211개를 크게 하회함
- 업종별로 제조업(65개→61개)과 건설업(38개→24개), 서비스업(77개→67개) 등 모두 감소함

■ 2월 기준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2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과 동일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66개) 보다 7개 감소한 59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
- 지역별로는 서울의 부도업체 수 7개, 지방은 22개(122개→100개) 각각 감소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37.1%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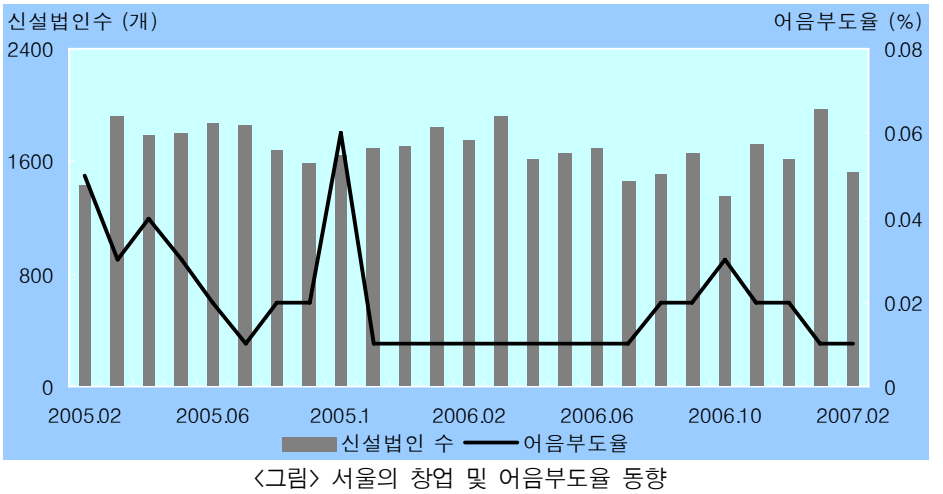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2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3	0.03	0.02	0.02	0	0.0	0	0.0
	부도업체 수	191	234	169	188	159	-29	-15.4	-32	-16.8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2	0.02	0.01	0.01	0	0.0	0	0.0
	부도업체 수	71	74	58	66	59	-7	-10.6	-12	-16.9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2007년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보증 건수 및 금액 대폭 증가

- 2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1,005건, 33,485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61.8%, 금액 87.2% 증가함
- 설날 자금수요 증대로 인한 일반보증의 증가 등에 따라 보증 건수 및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전월 감소하였던 건당평균금액은 15.6% 증가하여 30백만원을 초과함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고용촉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2007년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이 2월 20일 시행되어 총 1,000억원 지원 계획으로 보증공급 증가가 예상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244	875	1,115	1,081	621	1,005	384	61.84	-239	-19.21
금액	21,800	27,577	39,923	39,401	17,892	33,485	15593	87.15	11685	53.60
건당평균금액	17.5	31.5	35.8	36.4	28.8	33.3	4.5	15.63	15.8	90.29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전월 수준의 비율 유지

- 2월의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전월과 비교하여 증가세를 보이던 도·소매업의 비중(금액기준)이 다소 감소하여 40.9%(전월대비 -3.9%p)를 보였으며, 전반적인 현황은 전월 수준을 유지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20	403	193	234	55	1,005
비율	11.9	40.1	19.2	23.3	5.5	100
금액	5,546	13,684	4,634	6,255	3,366	33,485
비율	16.6	40.9	13.8	18.7	10.0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의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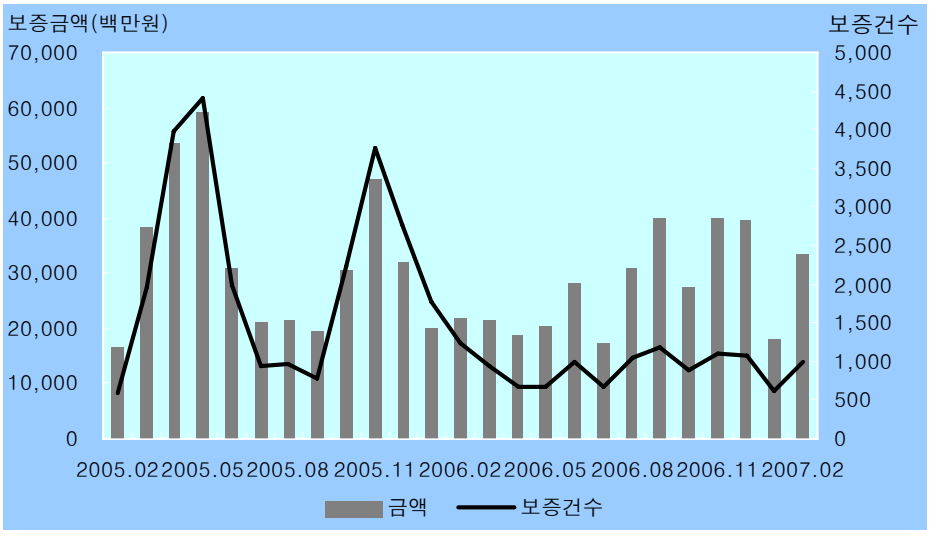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은 증가세를 보이던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8.4%p 감소하였으며, 반면 소기업의 비중이 8.0%p 증가하여 20.6%를 나타냄.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6.12	2007.01	2007.02	전월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973	572	918	346
	비율	90.0	92.1	91.3	-0.8
	금액	27,835	14,700	24,724	10,024
	비율	70.6	82.2	73.8	-8.4
소기업	건수	78	39	71	32
	비율	7.2	6.3	7.1	0.8
	금액	8,613	2,254	6,889	4,635
	비율	21.9	12.6	20.6	8.0
중기업	건수	30	10	16	6
	비율	2.8	1.6	1.6	0
	금액	2,953	938	1,872	934
	비율	7.5	5.2	5.6	0.4
합계	건수	1,081	621	1005	384
	비율	100	100	100	0
	금액	39,401	17,892	33,485	15,593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출·입·동·향 |

서울 수출 및 수입 증가세 둔화

■ 2월 기준 전국 수출 견실한 증가세

- 2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한 26,273백만 불로, 설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06.2월 22.0일 → 07.2월 20.5일)와 불리한 기저효과(06.2월 16.6%)에도 불구하고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함
- 품목별로는 철강(36.6%), 석유화학(26.6%), LCD패널(26.6%), 반도체(19.6%)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지역별로는 아세안(27.9%), 미국(23.0%)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월 기준 전국 수입 증가세 둔화

- 2월 전국의 수입은 25,233백만 불로, 전년동월대비 7.3%의 한자리수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됨
- 용도별로는 소비재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원자재와 자본재는 각각 유가하락과 자동차부품 등의 수입감소로 둔화됨

■ 2월 기준 서울 수출 증가세 둔화

- 2월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1,845백 불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됨
- 품목별로는 합성수지(31.0%), 반도체(24.0%) 등이 증가하고 의류(-29.9%), 무선통신기기(-29.2%), 컴퓨터(-23.2%) 등의 대부분이 감소함. 국가별로는 미국(-38.7%)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대만(38.2%), 중국(23.1%), 베트남(17.4%) 등이 증가함

■ 2월 기준 서울수입 증가세 둔화

- 2월 서울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9% 증가한 4,803백만 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무기류(103.3%)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자동차(47.2%), 전자기기(-40.7%) 등이 감소함. 국가별로는 태국(57.2%) 인도네시아(55.7%), 미국(35.4%), 중국(32.5%) 등 대부분이 증가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p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3,787	28,054	30,661	28,775	28,094	26,273	2,486	10.5	-1,821	-6.5
	수입	23,508	25,639	26,763	27,518	27,664	25,233	1,725	7.3	-2,431	-8.8
서울	수출	1,777	1,907	2,192	2,222	2,023	1,845	68	3.8	-178	-8.8
	수입	4,293	4,981	5,267	5,160	5,192	4,803	510	11.9	-389	-7.5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